

12

출처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이해자료

구슬치기, 바깥에서 교실에서



구슬치기, 바깥에서 교실에서

놀이의 즐거움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유아는 놀이의 즐거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약을 넘어 교사와 성인이 상상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유일한 놀이를 창조해 낸다.

교사의 놀이 의미 읽기의 시작

교사는 구슬치기 방법을 알려 준다. 유아가 구슬치기 방법을
고안하며 놀이하자 이에 관심을 기울였다.



놀이 흐름 따라가기

누가	언제	어디서
4, 5세 유아	2019년 3~4월, 바깥놀이 및 놀이 시간	바깥놀이 공간과 교실

장면 1. 바깥에서의 구슬치기

이 놀이는 3월 초에 교사가 바깥에서 구슬치기 방법을 알려 주면서 시작되었다. 유아는 교사가 처음에 알려 준 네 가지 방법에 다섯 가지 방법을 더 만들어 놀았다. 손으로 구슬을 굴리기만 할 수 있는 유아가 있는가 하면 굴리고 치면서 동시에 밀치는 유아도 있다.

〈아홉 가지 놀이 방법〉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큰 동그라미 밖에서 작은 동그라미 안으로 구슬 넣기 2. 작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구슬 맞춰 동그라미 밖으로 치기 3. 동그라미 안에 있는 큰 구슬 밀어내기 4. 선 밖에서 세모 안에 구슬 넣기 |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점점 작아지는 동그라미 안에 구슬 넣기 6. 구슬 맞추기 7. 큰 구슬 맞추기 8. 큰 구슬 쳐서 세모 모양 밖으로 밀어내기 9. 큰 네모 모양 안의 세모 모양 안에 있는 구슬치기 |
|--|---|

교사의 제안

유아의 방법

유아는 한 놀이 상황에서 놀이 방법 몇 가지를 동시에 만들고 활용하면서 논다. 놀이에서 유아는 구슬치기의 차례를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며 놀이한다.



왕구슬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선 넘으면 안돼!

놀이가 재미없어지거나 지루해질 때 유아들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 선을 만들면서 놀이를 변형시켜 나간다.



장면 2. 형과 누나들 옆에서 배우며 노는 구슬치기

4세 유아들은 형과 누나들 놀이를 기웃기웃하며 같이 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자신들의 다리를 연결하여 단순한 선을 만든다. 자신들의 다리 길이만큼의 크기로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 팔 길이를 조절해 가며 구슬을 굴린다. 재미를 느끼자 친구를 부른다.



최00, 이리 와.
우리 구슬치기 하고 있어.



교실에서 구슬치기

4월이 되자 유아는 교실에서도 구슬치기 놀이를 시작한다. 바깥의 구슬치기 놀이에서의 복잡한 선 그리기는 교실에서도 매우 중요한 규칙이 된다. 유아들은 뾰족한 돌멩이로 땅에 그림을 그리는 대신, 선을 대신할 사물을 찾는다. 바깥 선을 블록으로 세우고 안의 선은 색종이에 그림을 그려 넣어 이중의 복선을 만든다. 그리고는 구슬을 갖고 휴과는 다른 교실의 공간적 특성을 실험해 가며 규칙을 만들면서 논다.

1단계:

벽돌 블록으로 네모/동그라미, 십자 모양을 크게 만들고 → 그 안에 색종이를 놓고 → 색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 동그라미 안에 구슬을 던진다.



2단계:

구슬이 색종이 너머 바깥으로 너무 쉽게 굴러가자 주위에 있는 네모 자석 블록을 색종이 위에 한 개씩 놓으며 구슬을 넣어보면서 자석 블록을 높이 쌓는다. → 이 높이에서 구슬이 튀지 않자 네모 자석 블록(5개) 안에 구슬을 넣기로 한다. (구슬 이외 공기, 동전 등 다른 놀잇감도 사용해 보았다.)



유아들은 교실에서도 그때그때 필요한 규칙을 이야기하고 만들어 가며 논다. 바깥에서 따로 놀았던 4세 유아는 5세 유아 사이에 한두 명씩 끼어서 함께 구슬치기를 한다. 바깥에서는 구슬을 던지기보다는 굴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는데 교실에서는 놀이 자료 구조상 구슬을 던지고 논다.



놀이 경험 이해

〈유아의 놀이 경험〉

유아는 교사가 알려 준 네 가지의 구슬치기 방법에서 시작해서 놀이 과정에서 새로운 다섯 가지의 놀이 방법을 **자발적**으로 고안해서 놀이한다. 4세 유아는 5세 반 형들의 구슬치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구슬치기의 **즐거움**을 함께 느낀다. 4세 유아는 구슬치기를 하고 싶어 기웃거리지만 형들처럼 정교하게 동그라미 안에 구슬을 넣거나 구슬을 던져서 맞출 자신은 없다.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슬을 맞추기 위해 **몸을 움직인다**. 4세 유아는 즐거워 보이는 구슬치기를 하기 위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들만의 놀이를 **창안**해 낸다. 형님들처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우리’끼리 즐거울 수 있는 놀이를 **생성**한다. ‘선 넘지 않기’ 등의 규칙을 지키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타협하고 협력**하며 놀이한다.

구슬치기 놀이의 **즐거움**은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유아와 함께한다. 바깥에서만 가능했던 이 놀이의 즐거움을 교실에서도 이어 가기 위해 유아는 공간의 제약이라는 **문제 상황**을 **해결**해 간다. 교실 바닥에는 선을 그을 수 없다. 그리고 흙바닥과 달리 구슬이 저절로 굴러간다. 유아는 블록으로 선을 만들고 자석 블록을 쌓아 구슬이 굴러가지 않게 한 다음 구슬 넣기로 규칙을 바꾼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슬치기의 **즐거움**은 실내에서도 이어진다.

〈교사의 놀이 이해〉

교사는 유아가 구슬치기의 방법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며 자신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놀이를 창안해 낼 수 있음을 보았다. 또 구슬치기 놀이를 실내에서 하게 되었을 때 공간에 맞게 이전과는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놀이하는 유아의 유능함을 알게 되었다.

교사 이야기: 놀이 욕구의 사라짐과 나타남

3, 4월 두 달간 구슬치기를 하며 놀던 아이들이 더 이상 구슬치기를 하지 않는다. 구슬치기 놀이가 끝날 때 즈음이면 이긴 유아는 “내가 이겼지, 내가 구슬치기 왕이지?”라며 교사에게 확인하였고 진 아이들은 속상해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적극적으로 놀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승부욕 때문에 더 이상 구슬치기를 하지 않는 것일까? 이 경쟁심이 문제였던 것일까? 아이들이 언제 다시 한다고 할지 몰라 나들이를 나갈 때면 늘 구슬을 챙겼다. 드디어 두 달 만에 아이들이 나들이 가서 구슬치기를 하겠다며 구슬을 달라고 한다. 놀이가 끝난 뒤, 오랜만에 했는데 구슬치기를 어떻게 안 잊어버리고 할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냥, 생각이 났어, 오랜만에 한번 하나까 재미가 있어서...”, “구슬이 있어서”, “몰라”라고 말한다.

아이들은 이날도 구슬치기 놀이의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였다. 놀이를 하다가 큰 동그라미 안에 각자 선을 그어 방사선 동그라미를 만들었다. 방사선을 어떻게 활용할지 아이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그리고 교사인 나의 눈에 전과 다른 놀이 모습들이 보인다. 5세인데도 4세와 주로 놀던 민준이가 구슬치기에 동참하였고 진영이의 주도성의 정도가 낮아졌다. 나머지 아이들 역시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아의 놀이를 긴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제 의 교사의 고민이 오늘의 유아에 의해 사라지기도 하고, 오늘 또 다시 새로운 고민이 생기기도 한다. 결국 교사의 고민과 해답 모두 아이들에게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시작된 구슬 놀이를 보면서, 내일의 유아의 놀이를 기대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아가 펼치는 놀이를 긴 호흡과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교사 지원의 특징

교사는 구슬치기 방법을 제시하고 유아가 자유롭게 주도적으로 놀이하도록 하였다. 바깥놀이 때마다 구슬을 준비하여 나갔다.

